

절세위인을 모시여 행성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

오늘 공화국은 인류사상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인민도 헤쳐 보지 못한 사상초유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민족사상 최상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이 행성위에 자기의 용자를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은 더 주저앉았을 시련이고 다른 민족이라면 맞받아갈 용기조차 별수 없을 난관이다.

하지만 공화국은 단 한순간의 주춤도 모르고 휘황한 미래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내달리고있다.

날로 더욱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힘, 불요불굴하는 인민의 정신, 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령을 따라 날아갈 운세여지는 조선특유의 힘이고 조선인민특유의 정신이다.

자주권과 존엄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여덟의 재부를 자랑하고 풍부한 자원을 자부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자주권이 없고 존엄이 상실되면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

조선아, 너는 왜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였느냐, 왜 남과 같이 강하지 못하였느냐라는 눈물젖은 토로가 이 땅을 흔들던것이 바로 한세기이전의 일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다 못해 자기의 성과 이름마저 빼앗겼던 인민, 그래서 약소국, 식민지민족으로 불리우던 이 나라 인민이었다.

그 비참했던 어제날의 조선이 오늘은 자주강국으로 행성에 빛을 뿌리고있다.

지금도 누구나의 귀전에 쟁쟁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려장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긍지높이 선언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이다.

돌아보면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민족자주정신, 조선민족제일의 주정신에 기초하여 오래동안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기성의 편견을 깨고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특징을 새롭게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리신 정세가 북쪽만있는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이 둘러싸여있거나 대국을 잠에 끼여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대국들을 움직일수 있는 전략적요충지를 타고있었기때문이라고 나라의 지정학적특징을 명철히 밝혀주시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을 중심에 놓고 나라와 민족의 이익의 견지에서 보고 판단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투철한 자주사상의 표출이었다.

공화국의 전 행로가 그러하였지만 지난 10년간은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정신이 남김없이 파시되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우주만리에 뻗친 격동적인 나날들이었다.

공화국을 무적의 강국으로 일떠세워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의 휘황한 천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하실

같은 신념으로 국가력무력완성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떠내고 강국건설의 려정을 앞장서 헤쳐 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가슴속에는 이런 불같은 의지가 소용돌이 자리 잡고있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하고 우선 강해지고야 한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영원한 만복이 깃들듯이 나라도 강국부터 되어야

도 될수 있다.

자주의 강국인 우리에게는 존엄이 생명이며 존엄을 잃고서는 살수 없다는 억척불변의 신조를 지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쉬임없이 국력강화의 길을 걷고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원단을 내리기도 힘겹지만 실천하기는 몇천몇만배 강고한 핵 무력완성의 그 길을 단호히 앞장서 헤쳐시며 눈물겨운 헌신의 발걸음으로 공화국의 힘을 더해주시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험천만한 화선에도 서슴없이 나가시어 국방과학자들과 생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희생적인 헌신의 걸음걸음에서 《화제록탄》, 《절대병기》 일련의 대륙을 짊어보라, 도대체 오늘까지도, 지금 이 시각에도 전란과 동란, 대결과 위기, 참사와 불행으로 요동치고 신음하지 않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 존엄과 굴종, 삶과 죽음, 그리고 전쟁을 하고있지만 공화국인민은 평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존엄높고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존엄은 언제나 힘을 요구한다. 강은 피로써 얻는것이요 백년대

《을사5조약》의 강도적날조로 우리 민족은 자주권과 존엄을 깎아내리고 근 반세기동안 침략자의 발밑에 신음해야만 하였다.

그 11월부터 110여년만에 어제날 화승총을 부여안고 망국의 피눈물을 쏟아야만 했던 약소국이 최강의 자위적역력을 가진 강대한 나라로 자기의 위상을 한껏 떨치었다.

11월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아로새긴 긍지높고 영광스러운 강국의 달로 새롭게 아로새겨졌다.

세기의 지도를 펼치고 임의의 어느 대륙을 짊어보라, 도대체 오늘까지도, 지금 이 시각에도 전란과 동란, 대결과 위기, 참사와 불행으로 요동치고 신음하지 않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 존엄과 굴종, 삶과 죽음, 그리고 전쟁을 하고있지만 공화국인민은 평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존엄높고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존엄은 언제나 힘을 요구한다. 강은 피로써 얻는것이요 백년대

계를 낳지만 강이 없는 부는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

바로 그래서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야 부국이 있고 존엄이 있는것이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쓰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에 관한 문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기신 글말이다.

그 거대한 력사적사건을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찬신만고로 기대하며 바라보고있었는지, 또한 거기에 얼마나 크나큰 의미를 부여하시었는지 경애하는 원수님 이런 피가 뛰는 친필명령을 하달하시었다.

백두산악과 같이 억년 드물지 않는 자주적신념과 배짱으로 어떤 세력이든 감히 공화국의 근근이와 침탈하려한다면, 공화국본국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런 세력은 소멸될것이라고 하신 지난 4월의 열병식장에서의 위대한 선언이 이어 지난 9월 공화국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어 나라의 자주적존엄과 백절불굴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

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민족자존은 굽어죽고 열어죽을 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민족자존은 목숨보다 귀중하며 그것을 잃게 되면 나중에는 국가도 인민도 모든것을 다 잃게 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나라 인민의 가슴을 광광 울려준다.

자존과 의존, 글자로 따지면 단 한글자 차이이지만 그 종착점은 주인과 노예, 독립과 예속, 강국과 망국이라는 심각한고도 첨예한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남을 바라보는것을 절대로 허용치 않았고 자강력제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였고 강인담대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이었다.

모두가 기쁨속에 울고있던 성공의 그 시각 격정속에 눈물겹게 안겨온것은 나라와 인민을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기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였고 강인담대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이었다.

가슴터질듯 부푸는 긍지와 신심을 안고 격정으로 불타는 같은 심장에 조아박은 자강력의 정신을 총분출시키며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를 따라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들을 다발적으로, 려계가 우리러보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주체105(2016)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인 발사라는 력사적사건을 안아왔다.

단 몇차례의 시험위성발사에 이어 지구관측위성으로부터 극궤도위성으로의 급격한 발전, 그것은 위대한 강국으로 뛰어오르는 조선식비약의 궤도인 동시에 공화국의 자주정신과 창조적합의 일대파시였다.

모두가 기쁨속에 울고있던 성공의 그 시각 격정속에 눈물겹게 안겨온것은 나라와 인민을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기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였고 강인담대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이었다.

2월 7일 공화국의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인 발사라는 력사적사건을 안아왔다.

단 몇차례의 시험위성발사에 이어 지구관측위성으로부터 극궤도위성으로의 급격한 발전, 그것은 위대한 강국으로 뛰어오르는 조선식비약의 궤도인 동시에 공화국의 자주정신과 창조적합의 일대파시였다.

모두가 기쁨속에 울고있던 성공의 그 시각 격정속에 눈물겹게 안겨온것은 나라와 인민을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기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였고 강인담대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이었다.

가슴터질듯 부푸는 긍지와 신심을 안고 격정으로 불타는 같은 심장에 조아박은 자강력의 정신을 총분출시키며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를 따라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들을 다발적으로, 려계가 우리러보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주체105(2016)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인 발사라는 력사적사건을 안아왔다.

단 몇차례의 시험위성발사에 이어 지구관측위성으로부터 극궤도위성으로의 급격한 발전, 그것은 위대한 강국으로 뛰어오르는 조선식비약의 궤도인 동시에 공화국의 자주정신과 창조적합의 일대파시였다.

모두가 기쁨속에 울고있던 성공의 그 시각 격정속에 눈물겹게 안겨온것은 나라와 인민을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기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였고 강인담대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이었다.

가슴터질듯 부푸는 긍지와 신심을 안고 격정으로 불타는 같은 심장에 조아박은 자강력의 정신을 총분출시키며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를 따라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들을 다발적으로, 려계가 우리러보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주체105(2016)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인 발사라는 력사적사건을 안아왔다.



117년전 망국조약이 퇴친 비탄의 통곡소리

《...아, 분하도다. 이제는 노예가 된 우리 2천만동포여, 살았다고 하겠는가, 죽었다고 하겠는가.

...통분하고 통분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것은 1905년 11월 20일부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본설 《시일야방성대곡》(이날에 소리내어 크게 통곡하노라)의 한 대목이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처지로 굴러떨어지게 된 조선민족의 비통한 심정과 울분이 자자구구 승배인 글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이 섬나라 오랑캐무리들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상가집 개간도 못한 노예의 신세가 되었으니 그 원통함이 어찌 강산에 사무치지 않을수 있으랴.

삼천년 강산이 울음과 더불어 변하였고 눈물은 강물을 이루었다.

거리와 골목, 마을과 집 어디서나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망국의 한을 터뜨리는 백성들의 눈물겨운 광경이 펼쳐졌다.

민족의 력사 반만년에 이런 참변이 빚어질줄 과연 누가 알았으랴.

애국적인 지식자들은 자결로써 망국의 한을 씻으려 하였고 나라를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멀고먼 이역방으로 흘러갔다.

모습은 힘이 약한탓에 겪어야 했던 약소민족의 가슴아픈 치욕이고 비극이었다.

일제는 황궁을 무력으로 겹겹이 에워싸고 황제와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종칼로 위협하며 망국조약을 강박했다.

반대하는 대신들은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고종황제가 《조약》날조를 끝까지 반대하며 《백성들의 의향》을 물어야 한다고 하자 《헌법정치》가 아닌 《군주전제국》에서 《백성들의 의향은 기피천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강요했다.

이렇게 누구도 원치 않은 망국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국력이 약한탓에 어쩔수없이 강요당해야만 했던 비극적현실이었다.

돌아보면 남들이 군함과 기차를 타고 다닐 때 조선봉건정부의 관료배들은 갓소고 하늘소라고 음풍영월로 세월을 헛되어 보내었다. 국력을 키울 대신 큰 나라들만 쳐다보면서 파쟁을 일삼았다. 결과 국력은 점점 쇠잔해지고 이 땅은 려장들의 각축전장으로 되어 나중에는 섬나라 족발이들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1905년에 이르러 일본은 6 000t급이상의 최신군함만 12척, 현대적무장을 갖춘 20만명의 육군상비무력을 가지고있었다. 당시 서울에 기어든 일본군의 병력은 보병 3만명, 기병 800명, 포병이 5 000명이나 되였다.

이에 비해 조선군대의 병력수는 서울에 2개 연대 5 000명과 지방에 8개 대대 약 2 000명을 합쳐 7 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기본적인 무장장비도 창과 활, 화승대였다.

20만명 대 7 000명, 대포 대 화승총.

이것이 당시 조선과 일본의 군력실태였다.

이런 실태에도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수 있었겠는가. 20세기초 망국조약에서 터져나온 눈물과 비탄의 통곡소리는 힘이 없어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신세가 된 겨레의 눈물이었고 곡성이였다.

강국의 공민들이 웨치는 환호성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맞이하며 진행된 심야열병식이 준 총중은 오늘도 광복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있다.

열병식연단에 서시는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강국의 인민들이 리친 우렁찬 환호성.

지심을 뒤흔들며 나아가던 정예무력의 종대와 종대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취주먹인 주력방공중대와 세계최강의 병종인 포병부력, 세상에 없는 조선의 절대병기의 하나인 초대형방사포중대를 비롯한

위력한 첨단무장장비들... 드디어 드넓은 광장을 짙 채우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력한 무기가 지축을 울리며 려이어 나아가다.

《11축이다!》, 《우리(화성포-17)형이 나온다!》, 《아, 대단하다》, 《행성이 쿵쿵 울리는것 같다》... 강국인민, 주체조선의 인민들이 행성의 누구도 가진적 없는 최강의 보검을 틀어쥔 자부심과 긍지를 연해연방 터뜨리였다.

에나 지금이나 이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없다. 하지만 어제날의 조선과 오늘의 조선은 땅과 하늘의 차이이다.

117년전 조선의 국력은 화승대포로 이음할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주체조선의 힘은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이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세계가 총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거대한 힘을 어느분이나 마땅히 해주시려는가.

이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긍지와 영광을 어느분이 안겨주시었는가. 뜻깊은 그날 광장에 모



중앙계급교양관에 재현되어있는 《을사5조약》날조현장

본사기자 박철남

본사기자 전명진

2022년 - 인민의 가슴마다에 더 깊이 새겨진 신념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같은 노동자들에게 이런 공경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정녕 이번 4월의 심야열병식은 탁월한 수령, 위대한 평장을 모셔야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강성명연한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이름없는 농장원인 제가 원수님께서 가정에서 몸소 마련하여 보내주신 상비약품을 받아 안았을 때 정말이지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격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우리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공급해주시러 나라의 중요인사까지까지 통채로 내어주시고 조국방선을 지켜선 인민군부대들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오늘과 같은 거대한 온실바다를 펼쳐놓았습니다.》

... 이것은 세상을 놀래우는 사변적인 기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으며 공화국의 각계층 인민들이 러친 도로들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번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평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한없는 고마움이 어려있다. 태양을 떠나 아름다운 꽃에 대해 생각할수 없듯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공화국인민의 값높은 삶과 행복, 밝은 래일이 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지난 10년간 공화국은 얼마나 위대한 변혁과 기적들을 창조하였는가.

뜻깊은 이해에만도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준엄한 역경속에서도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삶을 안겨주기 위한 사변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루어져왔다.

되돌아볼수록 가슴뭉뚱함을 금할수 없다.

사회주의명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인 송화거리와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상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인 보통강안다락시주택구의 준공,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우와 함께 눈부신 불출기를 내뿜으며 만리창공으로 힘차게 솟구쳐오른 신형대륙간판도미씨일 《화성로-17》형의 장쾌한 모습과 강대한 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축 열병식, 악성비루스와의 총포성없는 방역전쟁에서 90여일만에 승리, 공화국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체택, 경사로운 10월의 명절과 더불어 성대한 준공의 날을 맞이한 련포은실농장, 황남명에 펼쳐진 농기개바다, 곳곳의 농촌지역들에 펼쳐지는 새집들이경사...

이 모든 기적적승리는 결코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도, 어느 누가 도와주어서 마련된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어떤 엄혹한 형세속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시고 완강한 공격전으로 국난을 타개하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고 세련된 령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올해의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철세의 애국자의 희생적인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들이다.

지금도 온 나라 인민들은 온한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대한헌신의 길을 걷고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새해 정초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는데 이어 수많은 중요 당 및 국가회의들을 지도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 1월 련포은실농장건설예정지나 현지에서 료해하시던 그날에는 련포지구에 100정보은실과 농장살림집지구가 일떠서게 되면서 이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되고 함흥시를 비롯한 함남도인민들의 식생활에 많은 보탬을 주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인민들의 식생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장, 당의 은실농장건설정책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만듭시다 일떠세우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확공식 그날에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포함하여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당은 인민들과 한제일 중요한 약속을 지키게 되며 우리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살림집건설의 확공을 알리는 발표목음이 2월의 봄하늘을 뒤흔들게 하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악성비루스와의 총포성없는 방역전쟁으로 홀려온 5월의 그날 우리 당중앙이 력사의 시련앞에서 다시한번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검증받을 시기가 왔다고,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쳐줘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하시며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방역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서 평온한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라며 천만인민은 그의 령도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갈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이렇게 이해의 하루하루가 흘러왔다.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총성,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무한한 헌신으로 이어진 올해와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이다.

이 조선을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역척의 의지, 사랑받는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불같은 열망을 안으시고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의 날과 달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2022년은 위대한 사변과 기적들을 아로새긴 승리의 해로 빛나고 공화국의 앞길에는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밝은 미래가 펼쳐졌다.

본사기자 유금주



///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렸다고 하시며

주제111(202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송진,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이날 원수님께서 살림집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거리의 전경이 정말 불만하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머지않아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준공예트를 끌고 보금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리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태양절까지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수 있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리게 되었다!

인민의 행복과 웃음을 꽃피우는 일을 더없는 락으로, 다시없을 소망으로 여기시는 인민

새로운 형식의 주택구건설의 본보기

주제111(2022)년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통강안다락시 주택구를 돌아보시었다.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각 부문의 로력력신자, 근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사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해전 경치좋은 수도중심

부의 보통강기술 명당자리에 다락식, 다층, 소중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특색있는 주택구를 일떠세우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었다. 그리고 수많은 설계형성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풀어주시며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었다.

본사기자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에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조선은 떠받드는 위대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조선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가장 특이한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것이다. 조선이 부닥치는 난관을 극복하고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해올수 있는 비결은 사회의 공고한 단결에 있다.》(네팔인리버트잡지 《네팔 투데이》)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에 조선사회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수호해나가는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며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조선의 불패의 강국으로 떠받드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에티오피아신문 《포춘》)

《김정은각하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리상적인 국가령도자이시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애민형의 정치가이신 김정은각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일관하게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신다.》(브라질신문 《아구아 베르데》)

《조선에서는 모든것이 《우리》라는 말과 더불어 불리우고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의 대가정속에 살고있다. 조선사회의 가장 큰 위력은 바로 일심단결이다.》(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에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해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더 좋은 일을 향해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진 조선은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더욱 떨쳐갈것이다.》(로씨야리빙공산당 하바루스크변방위원회 제1비서)

본사기자



축복받은 공화국의 어머니들



지난 11월 16일 공화국에서 어머니날을 뜻있게 맞이하였다.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나라앞에 뜻깊이 내세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 어디서나 뜨겁게 흘러넘치었다.

어머니들이 온 집안, 아니 온 나라가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음지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조선녀성으로 태어난 남다른 긍지와 자부기가 비껴흘렀다.

어머니! 얼마나 친근하고 다정한 부름인가. 자식들을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은 어머니들이 사회앞에 지닌 의무이고 본분이다. 그러나 그 부름이 언제부터 그토록 아름답고 정답게 불리워지게 되었는가.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세월

귀여운 아기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고 자식의 운명도 지켜주지 못하였던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었다. 절세위인들의 마사로운 품속에서 공화국의 어머니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들

을 바쳐가며 존엄높고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리울수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진행되었던 뜻깊은 날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어머니들의 긍지와 행복은 더욱 꽃피어

고있다. 살고있는 허명금녀성이 한 말이다. 평범한 무죄도전자운전자인 그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같으면 특권층이나 쓰고살 호화로운 살림집의 주인이 되었으니 어찌 격정으로 가슴부풀지 않랴.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다 영광과 행복의 상봉에 올라 복받은 삶을 누

려가고있는것은 아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어머니들은 무관심과 차별, 학대와 폭력속에 시들어가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일할 능력을 가진 많은 녀성들이 생활난과 자녀보육때문에 힘들게 얻은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있는것은 아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어머니들은 무관심과 차별, 학대와 폭력속에 시들어가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일할 능력을 가진 많은 녀성들이 생활난과 자녀보육때문에 힘들게 얻은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있는것은 아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어머니들은 무관심과 차별, 학대와 폭력속에 시들어가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일할 능력을 가진 많은 녀성들이 생활난과 자녀보육때문에 힘들게 얻은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있는것은 아니다.

의 불행한 처지가 비껴있다.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범죄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생활난과 각종 학대로 인하여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녀성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되고있다.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아야 할 녀성들이 제도과 정치를 잘못 만난탓에 인격과 존엄, 생존권을 강그리 짓밟히고 사회악의 희생물이 되고있는것이 남조선녀성들의 비참한 모습이다.

어머니, 정녕 그 부름은 서로 같아도 이처럼 사회제도에 따라 펼쳐진 현실은 명암처럼 대조되고있다. 하기에 이 땅의 어머니들은 한복소리로 터친다.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품,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어머니들처럼 복받은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리은별

의 불행한 처지가 비껴있다.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범죄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생활난과 각종 학대로 인하여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녀성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되고있다.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아야 할 녀성들이 제도과 정치를 잘못 만난탓에 인격과 존엄, 생존권을 강그리 짓밟히고 사회악의 희생물이 되고있는것이 남조선녀성들의 비참한 모습이다.

어머니, 정녕 그 부름은 서로 같아도 이처럼 사회제도에 따라 펼쳐진 현실은 명암처럼 대조되고있다. 하기에 이 땅의 어머니들은 한복소리로 터친다.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품,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어머니들처럼 복받은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리은별

독자문답 제카나나동포 김선영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녀성들에게 로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주고있는가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에게 남성들과 똑같은 로동의 권리를 보장해주고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온갖 조건을 다 지어주고있다. 녀성로동자들이 일하는 곳에는 근로녀성들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등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중진시키고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을 적극 보장해주고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부문에서 녀성로력의 비중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녀성들은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을 위해 특별한 로동보호대책도

세우고있다. 로동법에 의하여 녀성로동자들을 진동이나 심한 작업, 견인작업과 무거운 짐을 다루는 작업, 잠수 및 잠합작업부문에서 일을 시킬수 없다. 13살미만의 어린이를 3명 이상 가지고있는 녀성로동자들에게는 하루에 6시간 로동을 하게 하고 로동시간이 줄어들때 관계없이 8시간에 맞먹는 생활비를 제공해준다. 공화국에서는 해방후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여 녀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생활비를 받도록 하였으며 공장마다에 탁아소를 설립하고 녀성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로동에 참여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것이 부족한속에서도 병원들에 산부인과를 꾸려놓고 임신부들에 대한 해산방조를 진행하였으며 생사를 판가름하는 전쟁시기에도 임신한 녀성과 한살아래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들은 시간의 로동을 시키지 말고 산모를 특별히 보호할데 대한 국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공화국의 녀성들은 나날이 늘어만 가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시책속에 로동의 참된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본사기자

어머니, 그 부름은 서로 같아도

나라에서는 어머니들을 행복의 절정에 내세워주고 어머니들은 그 행복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기꺼이 뿌리가 되고있는 사회가 바로 공화국이다.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어머니들속에는 누가 보지않건 인민을 위한 성실한 복무의 길을 걷고있는 녀성들도 있고 한

인민들에게 밝은 눈을 안겨주기 위해



송성희경리(왼쪽에서 두번째)

얼마전 우리가 평양교원대학부속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을 찾았을 때 평양안경상점의 송성희경리가 어린이들에게 안경교정을 해주고있었다. 《눈이 잘 보이나요?》

《네.》
《늘 함께 있으면서도 미처 몰랐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너도나도 찾아온 어머니들의 진심어린 인사에 송성희경리의 대답은 한마디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비해볼 때 자기들이 한 일은 한알의 모래알에 불과하다고. ...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자라나는 후대들에게서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조건을 지어주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종대정책이고 숙원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을 받들자면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소박하고 성실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총복으로 삶을 빛내고있는 그의 인생길을 돌이켜보았다. 송성희경리는 지난 수십년 세월 시력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파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쇠돌산을 앞에 놓고도 일 자리를 폭풍 내지 못한다고 안라잡게 호소하는 한 광부를 위해 머나먼 북변 무산에까지 찾아가 이동봉사를 해주던 다심한 심정으로 그는 시력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동봉사의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 나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따파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강, 주수가 그의 봉

생을 과학탐구의 길에 바쳐가는 녀성들도 있다.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정신세계를 지니고 장엄한 격벽기를 힘있게 떠벌어나가는 녀성들, 조국을 떠 만드는 믿음직한 고임들이 되고있는 훌륭한 어머니들을 《통일신보》가 만났다.

사일지에 계속 늘어났다. ... 인민들의 밝은 눈을 위해 서라면 그에게 해당 안되는 일, 상관없는 일이 따로 없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 헌신은 있을지언정 그 대가를 바라거나 인정해줄기를 바라지 않는것이 그의 마음속진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인민들에게 밝은 눈을 안겨주기 위해 순

《을밀대》 제품에 깃든 따파 열정

공화국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한 마감건재들이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평양건재공장에서 생산된 《을밀대》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날이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평양건재공장을 찾은 우리에게 한 일군은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살아숨쉬는 공장, 우리 식으로 비약하는 공장이라고 말한다. 여기



조명옥소장(왼쪽에서 첫번째)

에는 원료, 자체의 국산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조명옥 공업기술원장에게서 생산된 《을밀대》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날이 높아가고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제인가 공장서 디젤유에 의존하던 타일과 위생자기의 소성공정을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가스공급공정으로 바꾸는 문제가 제기되었

을 때였다고 한다. 그때 조명옥소장은 연료계통을 우리 식으로 바꾸는것은 공장의 운명과 직결된 생활적인 문제이다. 그 어떤 난관이 조성된다고 해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고 하던 기술자, 기능공들과 지혜를 합쳐 연료공급의 국산화를 훌륭히 실현해냈다고 한다. 수입원료와 대등한 도자기 원료를 찾기 위해 나라의 방방곡곡 산방들을 무수히 오르내리며 끝끝내 수십여가지의 원료를 채취해냈을 때에도 너무 기뻐 흐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한 것이다. 조명옥소장이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할수 있다는 CNC가공방에 의한 위생자기생산을 공장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하기로 결심하였을 때였다. 연구조를 뚫고 달려붙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으나 그는 주저않지 않았다. 한번 해서 안되면 열번, 스무번... 이렇게 곧 2년간에 걸친 고심참담한 노력 끝에 마침내 성공의 빛을 보고야말았다. 조명옥소장도 사랑하는 자식들과 남편이 있는 평범한 녀성이다. 하지만 그는 가정보다 먼저 공장을 생각하고 나라에 보탬을 주는 일에 남먼저 뛰어들어 이악하게 노력하는 량심의 인간이며 참된 녀성과학자이다. 마감건재생산의 국산화와 생산공정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여국의 한마음으로 조국을 앞드는 참된 어머니들

을 때였다고 한다. 그때 조명옥소장은 연료계통을 우리 식으로 바꾸는것은 공장의 운명과 직결된 생활적인 문제이다. 그 어떤 난관이 조성된다고 해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고 하던 기술자, 기능공들과 지혜를 합쳐 연료공급의 국산화를 훌륭히 실현해냈다고 한다. 수입원료와 대등한 도자기 원료를 찾기 위해 나라의 방방곡곡 산방들을 무수히 오르내리며 끝끝내 수십여가지의 원료를 채취해냈을 때에도 너무 기뻐 흐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한 것이다. 조명옥소장이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할수 있다는 CNC가공방에 의한 위생자기생산을 공장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하기로 결심하였을 때였다. 연구조를 뚫고 달려붙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으나 그는 주저않지 않았다. 한번 해서 안되면 열번, 스무번... 이렇게 곧 2년간에 걸친 고심참담한 노력 끝에 마침내 성공의 빛을 보고야말았다. 조명옥소장도 사랑하는 자식들과 남편이 있는 평범한 녀성이다. 하지만 그는 가정보다 먼저 공장을 생각하고 나라에 보탬을 주는 일에 남먼저 뛰어들어 이악하게 노력하는 량심의 인간이며 참된 녀성과학자이다. 마감건재생산의 국산화와 생산공정현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하여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은 그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시었다. 높은 실력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나라의 부강번영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그의 모

세계를 앞서나갈 높은 목표를 안고



동정혜실장(오른쪽에서 첫번째)

공화국의 의학연구원에 처녀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는 30년세월 수십건의 가치있는 의학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나라의 의학발전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재능있는 녀성과학자가 있다. 그가 바로 의학연구원 의학생물학연구소의 동정혜실장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이곳 연구소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댄 그는 생물공학기술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의학생물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과학탐구의 길을 뜻뜻이 걸어왔다. 난치성질병들의 치료와 예

습에서 우리는 확신했다. 이런 참된 녀성과학자, 기술자들이 많이 공화국은 더욱 강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전인민적진군에서 끊임없는 기적이 창조되고있는것이라고.

이밖에도 그는 어린이들의 키크기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제조합사탕장조르몬 주사약을 비롯한 의약품들을 생물공학방법으로 제조하여 청소년들과 난치성질병 환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한생 의학탐구의 길을 쉬임없이 걸어온 동정혜실장의 모습은 수수하고 소박하다. 하지만 동정혜실장의 삶은 지금껏 그가 받은 40여개의 과학기술증서들과 그가 연구한 효능높은 의약품, 예방약들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고 생기와 활력에 넘쳐 생활하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과 더불어 빛나고있다. 지난 8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동정혜실장. 그는 말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연구성과들을 내놓는데만 있지 않습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 세계를 앞서나가는것, 이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인민들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제일중대사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는 오늘도 더 높은 연구실적을 이룩하기 위한 탐구의 주로를 변함없이 달리 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조선사람은 차림새도 행동도 조선사람의 맛이 나게 해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고 고상한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빛내이도록 일꾼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체38(1949)년 4월 25일이었다.

이날 일꾼들과 함께 한 일꾼의 병문안을 하고 마당으로 나오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부르시어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옷차림을 보니 봄기운이 확연합니다.》

그때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산뜻하게 받쳐입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환히 웃으시며 곁에 서있던 내각 문화선전상에게 물으시었다.

《어떻습니까?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동무의 옷차림새가 보기 좋습니까?》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동

무에게는 조선치마저고리가 잘 어울립니다.》

《조선치마저고리가 참 좋습니다. 치마저고리를 입으면 몸매가 늘씬하게 보입니다.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좋습니다.》

확실히 조선녀성들에게는 치마저고리가 잘 어울립니다.》

뜻밖에 수령님으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너무나 황송하여 얼굴을 붉히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는 그러는 그를 한동안 대견히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우리자신들이 잘 살려야 합니다.》

그러시고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 조선옷이나 양복을 입을 수 있다고, 머리단장도 나이와 취미, 머리생김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며 그런데 지금 일부 녀성들

민족의 단합과 변명을 위한 길에서

한 해외동포가 찾은 인생전환의 길 (3)

평양방문후 림창영선생의 활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 선생의 마음은 그의 위대한 애국애족의 위업을 만들어갈 의지로 충만되어있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재미동포들의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선생이 서있었다.

1977년 6월 선생은 반독재민주화투쟁단체들을 망라한 《민주민주국민연합》을 결성하고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77년 8월부터 1981년까지는 《민주민족통일해의한국인연합》(《한민련》) 수석의장으로, 1981년부터는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1987년 8월부터 《민주

민련》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조직한 《한겨레운동민주연합》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 로 전개하였다.

선생은 《한민련》결성모임에서 《죄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형 등 박정희(정권)이 자행하고있는 기만과 폭력행위는 헤아릴수 없는것이며 이와 같은 사태의 시정도 본래의 사명》이라고 밝혔고 《해외한국인 민주운동대표자회의》에서 한 보고에서는 박정희(정권)이 떠벌이는 《공산침입의 위협은 종신전권을 누리려고 하는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였다.

선생은 미국이 박정희(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것을 요구



반과소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의 대학생들

하여 백악관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1980년 5월이후에는 광주대학살행의 진상을 밝히고 전두환군사과소도당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주장하였다.

《미국 선생은 재미동포들속에서 《미주지역 민주화운동가 계보》라고 불리었다.

림창영선생은 1983년 1월 《한민련》확대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반외세, 민족자주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릴것을 호소하였으며 그해 5월에는 민족문제복미추대의동포회의소집을 발기하고 회의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한련 선생은 미국대통령과 미국의 정계, 사회계 중요인물들에게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편지들을 보내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위와 서명운동도 적극 벌렸다.

선생은 특히 조국을 방관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집권을 받은 사실과 그의 높이신 덕망에 대해 동포들에게 늘 말해주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은인,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받들었다.

본사기자 전영민

무모하고 비렬한 반공화국, 반총련소동

최근 일본에서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섬나라것들은 지난 11월 3일 공화국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일본령도상공을 통과했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미야기현과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에 경보체제를 가동시키는것과 함께 언론보도를 통하여 반공화국여론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일본것들은 지난 2월과 3월에도 남조선미국일본외교장관회의와 합참의장회의에서 공화국의 군사적조치들에 대응하여 조선반도주변에서 남조선미국일본합동군사연습을 벌릴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에는 조선동해상에서 미국, 남조선호전광들과 대규모의 연합함대합동훈련을 벌려놓았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간》호라격전단을 끌어들여 조선동해에서 남조선미국일본해상연합훈련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그러나 하면 미국과 윤석열연립정권이 벌린 사상 최대규모의 《비질런트 스톰》연합공중훈련에 일본 이와구니미군기지의 스텔스전투폭격기 《F-35B》를 비롯한 수 많은 전투기들이 참가하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었다.



일본반동들은 총련기관들에 대한 강제수색을 감행하였다.

한련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와 학생들, 총련기관들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사건들을 연이어 일으키고있다.

이것은 섬나라쪽속들이 미국,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한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반공화국, 반총련, 조선인베타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섬나라것들이 입에 거저품을 물고 결코드는 공화국의 군사적조치들로 말하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 일본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침략책동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생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조치이다.

일본반동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국전쟁책동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공화국의 군사작전을 놓고 위협을 느낄 아무런 리유도 없다. 도박이 제 발자욱에 놀란다고 《북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드는 섬나라쪽속들의 행위는 저들이 벌리는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따른 과도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히스테리적판태이다.

그리고 반공화국, 반총

본사기자 박해방

절세위인들과 총련

대를 이어 전해가는 아버지사랑

오랜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많은것이 사라지고 잊혀지지만 아무런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전해지는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하늘같은 은정이다.

지난 8월 총련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에서는 교직원, 학생들과 재일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 학교 학생들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주체61(1972)년 8월 18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여름방학을 리용하여 조국을 방문한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추주소조와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원들을 만나주시었다.

궁전극장에 이르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목메어 민선의 환호를 울리며 품에 안기는 재일청소년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면서 울지 말라고, 대장부가 울면 되느냐고 달래시었다. 그러시면서 세계대검으로

들러서있는 어린이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두볼을 감싸주시기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아이들이 모두 똑똑하고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하시며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살인가,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잘 있는가고 일일이 물어주시었다.

이어 재일동포들의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국땅을 찾아오게 된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형편과 사회주의건설성공에 대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날 재일청소년들은 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자기들의 다짐같은 호모와 감사의 정을 다채로운 춤과 노래에 담아 무대어울렸다.

공연이 끝나자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그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친히 무대에 오르시어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리신 후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그들모두에게 수여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는 손수 함을 여시고 시계에 흠집이라도 있을세라 다시 살펴보신 다음 어린이들의 손에 하나하나 쥐어주시면서 내가 동무들에게 주는 이 시계

는 기념으로 차고다니라고, 시계 끈이 커서 아이들에게는 안맞을 수도 있는데 잘 보관하였다가 큰 다음에 차도 된다고 은정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는 그러시고도 부족하신틀 이틀후에 그들에게 또다시 사랑어린 귀중한 선물들을 안겨주시었다.

학생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받아안은 선물가운데는 자나깨나 그리운 아버지수령님의 탁상헌형초상화와 립제사진 《만경대고향집》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화첩 그리고 인상과 사랑, 과거, 오감, 구두, 녀학생들을 위한 다색단과 목수건 등이 들어있었으며 여러가지 민족악기들과 그들이 다니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보내시는 5 000권의 고급학습장과 1만자루의 연필까지 들어있었다.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배풀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은정을 전하는 이야기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총련일꾼들은 오랜 기간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고있다고, 조국의 흠새가 나는 선물들이 좋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인사도 보내주고 꽃도 보

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뜻깊은 명절마다 사랑의 선물들을 가슴가득 안겨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이다.

언제인가는 친히 총련일꾼자녀들의 합숙을 찾으시어 그들의 학습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설명절을 비롯한 기념일에는 귀중한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시었으며 처음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조국에 왔을 때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기념으로 필한 물건들 몇가지 주면 되지만 이국땅에서 고생하며 싸우는 우리 동포들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시면서 친히 선물명세에 인상을 더 넣도록 하여주시었다.

진정 총련일꾼들과 해외동포들,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한 품에 안으시어 사랑과 은정만을 쏟아부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하기에 오늘도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은 아버지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길이길이 전해가며 총련부흥과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을 곳곳이 이어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도교지역의 녀성동맹조직들이 조선학교 학생수를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

총련 도교조선제9초급학교를 맡은 녀성동맹지부에서는 지역의 학생전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활동을 벌

리고있다. 우리말쓰기, 수수께끼, 틀린그림찾기 등 지능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이 수록된 문제집들을 학생전어린이들이 있는 가정들에 보내주는것이다.

문제집의 내용들은 어린이들의 심리특성에 맞게 짜여져있다. 이 사업은 약성전연명의 대류행으로 하여 여러 행사가 열리지 못하게 된 조건에서 이곳 지부일꾼들이 착상

한것이다. 어린이들모두가 문제집을 끝내고는 새 문제집이 도착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기쁨도 크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꼭 민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총련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는 해마다 고급부 학생들의 대상으로 《진정한 조선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학생들이 언제나 조국을 몸가까이 느끼

하고 조선민족의 당당한 성원으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 벌리는 활동이다.

《우리의 력사》, 《우리를 돌

리란 정세》, 《우리의 미래》 등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강성비약하는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을 격정

속에 토로하며 애국의 결의를 다진다.

《애국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겠다.》, 《조국과 동포사회를 위한 길에서 청춘을 빛내겠다.》... 본사기자



민족교육의 회원에서 역세게



자라나고있는 재일동포학생들

《인권유린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하라》

-미국에서 일본정부와 윤석열연립정당을 규탄하는 시위진행-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뉴욕위원회(6.15뉴욕위원회)가 재일동포학생들을 차별하는 일본정부의 민족차별정책과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리었다.

시위에는 《뉴욕홍사단》, 《뉴욕민화협》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정부가 고교무상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제외시키고 유치원과 보육원도 무상화하면서 재일동포만 제외시키는데 이어 약성비루스감염증 사태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

게 보조금을 지불하면서도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그 대 상에서 제외한데 대해 언급 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보편적 인권인 교육평등을 위반하고있으며 약절적인 민족차별 정책에 대탈리고있다고 하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유엔인권조약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뉴욕동포들은 일본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재일조선인들에게 굳은 연대성을 보내며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이 철폐될 때까지 함께 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어 그들은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민족차별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인권유린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고교무상화 즉각 적용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뉴욕주재 일본총영사관앞에서 시위를 벌리었다.

한련 참가자들은 뉴욕주재 남조선총영사관앞에서 사대매국행위를 일삼으며 복침전쟁도발책동에 미처달뛰는 윤석열연립정당을 규탄하는 시위도 전개하였다.

그들은 최근 미전략자신이 조선반도에 전개되고 련이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의 강행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점점 정경으로 치닫고있는 가운데 남조선해군은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참가한데 대해 언급하고 지금 윤석열(정권)에 대한 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조선미국일본의 합동전쟁연습과 전쟁반대연대사가 발표되고 윤석열연립정당을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어리석은 권사적기본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합동참모본부제정안》을 립법하여 그 무슨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라는것을 신설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 임무수행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떠들고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형3축라격체계》의 지휘와 운용구조 등의 불합리성을 피치하여 《북진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북진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 어리석은 군사적기본에 따른 또 하나의 가스로운 대결망동이다.

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3축라격체계》는 오래전부터 실시간감시와 정찰, 식별과 분석, 추적과 요격, 타격의 정밀성, 다량발사된 미사일들에 대한 처리능력 등에서 허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남조선군내부에서까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혹평을 받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북진전쟁연습들에서 드러난것처럼 이 체계의 핵심이라는 미사일들이 불발되거나 락탄되었고 미사일조기경보체계 역시 다발적, 다각적인 미사일들을 탐지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었다.

발육같은 미숙아, 눈논 청명과 나와 같은 기능상실의 체계와 고철덩이같은 무기들, 제각기 놀아대는 오합지졸 군부장관들의 취약성과 허점을 그 무슨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 같은것이나 내온다고 없앨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오산이고 이러한 부실하기 그지없는 체계와 무기를 가지고 최강의 핵보유국과 맞서보겠다는 것 또한 망상중의 망상, 만용중

의 만용이다.

역적패당이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신설하려 하는것은 역도의 집권《공약》인 전략사령부창설을 무난히 추진해보려는 기도와도 관련된다.

남조선내부에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렬세를 만회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신설하려고 하지만 결단코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렬세를 숙명적인것으로 감수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 언젠은 이러한 비대칭관계를 절대로 허물수 없다. 미국상전도 진통하는 절대적합을 비축한 공화국을 상대로 군사적행동을 기도하는것은 가담치 않은것이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멸행위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군사적으로

공화국과 맞설 공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공화국의 전쟁역적렬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스려 한다면 그러한 무모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중지박산날것이다.

남조선내부에서 《한국형3축라격체계》로도, 전략사령부의 전신이 될수 있는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로도 《북의 핵 및 미사일공격을 탐지, 요격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급격히 발전하고있는 북의 미사일능력에 남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상대를 오관하고 무모하게 설친다면 그것으로 언을것은 가련하고 비참한 종말뿐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인권유린자들의 추악한 망동

화는 입으로 나온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라는 뜻일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역도의 입이라는것은 자기에게 타격 될 온갖 화를 스스로 쏟아놓는 《관도라상자》 같은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얼마전 동아시아지역을 행각한 역도가 공화국의 자주권리행사와 자위적조치들에 대해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떠들며 미일상전에게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의 대북화장적체제구축》과 《공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저들의 대결정책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구걸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윤석열역도가 《도발》이

니, 《위협》이니 하며 걸고든 공화국의 군사적조치들로 말하면 의외와 야합하여 시시각각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는 역적패당의 북진전쟁책동에 대응한 지극히 정정당당한 자주권행사이고 자위적조치라는것은 내외가 인정하는것이다.

그리고 역적패당이 《년례적》, 《방어적》으로 묘사한 전쟁연습들이 《선제공격》, 《참수작전》 등 훈련의 내용들이 보여주듯 북침을 노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는것도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역도의 반공화국대결, 사대매국정책때문에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이 격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윤석열은 퇴진하

라》, 《퇴진이 곧 평화》라고 성토하고있는것이다.

역도와 그 패당이 떠드는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이라는 꾀변은 공화국의 주권과 체제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정치적도발이고 도전이며 버릴수 없는 대결광, 호전광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꾀변에 불과하다.

집구석에서는 허세를 부리며 위험천만한 전쟁소동에 열을 올리고 집밖에서 나가면 입부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망발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역도이다.

이번에 윤석열역도가 해외연단에서 그 무슨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얻어보고자 하는 구걸질을 한것도 그에 대한 하나의 실증이다.

이미전에 남조선 각계층과 미국의 패권전략과 북침

핵전쟁책동의 머슴꾼인 호전광, 반공화국제압파공조에 매달리는 대결광, 영망인 집안골은 아랑곳없이 해외를 돌아다니며 해괴한 추태만을 일삼는 정치시정배로서의 윤석열역도의 본색을 다시금 드러내듯이 바로 역도의 이번 동아시아행각이었다.

다시말하여 대결과 사대에 쪼든 역도의 추악성을 날날이 드러낸 대결행각, 매국행각이며 수처와 굴종을 발뺌하는 정치무능의 망성행각인것이다.

그것저나 입만 벌리면 대결악담이고 사대망발만 늘어놓는 윤석열역도의 구르고구린 입이 참 문제이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역도의 지능지수 또한 문제중의 문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윤석열역도는 악취풍기는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다가는 더 큰 분봉을 당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기영



최근 남조선내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때문에 북남사이에서 무력충돌이나 《주부전쟁》까지 일어날수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역적패당이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연한 주장이 아니라,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최악의 정세는 전적으로 미국과 함께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고 미쳐달려는 윤석열역적패당에게 책임이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역적패당은 권력의 지리에 올라왔기 바쁘게 공화국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미국상전

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재개 및 확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 《확장적전략협약》의 재가등에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무모한 전쟁대결책동에 매달려왔다.

최근에만도 미국과 대규모 연합합동전쟁연습인 《비블런트 스톰》을 벌인테 이어 《2022 태극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며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지역을 돌아치며 미국, 일본것들과 반공화국군사적결락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망동을 부

리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 마련이다.

결국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윤석열역적패당의 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정쟁》을 걸어치워야 한다고 하면서 반전평화, 반윤석열투쟁에 총력하고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 처지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치다가는 비참한 대가를 치르기마련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내부에서 일어나오는 《대북강경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심중히 듣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부연하건대 미국도 두려워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공화국과 힘으로 맞서보겠다는것이야말로 제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리종국

오늘도 타오르는 불길

살았다면 이제는 중순도 보았으련만 52년전, 꿈같은 그 나이에 스스로 제몸에 불달아 악정에 항거한 남조선의 전태일

그 웨침은 남조선노동자들 전체의 웨침이었고 그 웨침은 《유신》독재멸망 부른 퇴성이었거니 오, 청계천기술에서 타올라 남조선 각계층의 마음들에 지져진 그 불길

활활 타는 불속에서 터져나오던 남조선노동자들의 분노의 웨침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싶다

오늘도 마초처럼 내몰리우는 남조선의 수백만 전태일들이 철탑우에서, 거리와 광장들에서 웨친다 -이대로는 살수 없다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서자

남조선땅을 휩쓸던 료원의 그 불길 세월이 흘러 반세기가 넘어도 정녕 꺼질줄 모르는 그 불길

아, 《유신》독재 통가하는 윤석열역적패당 그 교활하고 극악한 반역세력 그냥 두면 노동자들의 미래가 없네 전태일의 몸과 정신이 실릴텐 그날까지 투쟁의 불길은 더 거세차게 타오르리라



불행과 재앙만을 몰아오는 《참사정권》

《(국정)철학과 미래의 전망은 없고 (참사정권)이라는 오명만 각인시켰다.》,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참사)로 귀결됐다.》, 《이제 겨우 임기의 10분의 1이 지났을뿐인데 국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역도의 집권 6개월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평가와 분석이다.

우연한것이 아니다. 역도의 집권기간 민생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던 역도는 심복들과 친인척들로 몽그려놓은 《동아리정부》를 만들어놓고 저들의 안일과 부패를 위한 파초독제를 구축하는 데만 골몰하였다.

《국민생명의 안전과 보호가 제1책부》라고 입버릇처럼 외위대던 윤석열《정

권》은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가 꼬리를 물고 들어닥다. 가계부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민생이 아수성처도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 위기에 위기만 덧쌓고있다.

민생은 이 풀인데도 역적패당은 추악한 대결정치로 남조선사회에 분열과 혼란만을 야기시켜왔다.

야당파의 《소통》, 《협치》는 불통, 독재통치, 정치보복으로 되었고 민생을 혼란하는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더욱 악명을 떨치고있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유에 거슬리는 언론들에 대한 탄압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최근 언론《MBC》에 대한 탄압광풍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새는것처럼 해외교참사만 엮어놓은 윤석열총체적으로 윤석열역도는 남조선에 경제위기, 재난위기, 민생위기, 외교참사, 전쟁위기 등 온갖 위기와 재앙만 몰아오는 화근이다.

윤석열역도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쁜짓만 골라하는 불망중, 망나니로 락인찍힌 인간추물이다.

머리에 든것은 없고 지속하고 덜덜떨은 이런자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으니 남조선이 온통 엉망이 되고 앞날이 캄캄해질수밖에 없는것이다.

-독초는 뿌리채 뽑아던져야 한다.-

위기관 몰아오는 화근-윤석열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얼마전 윤석열역적패당이 해외행각을 떠나면서 《MBC》취재진의 《대통령》전용기탑승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당 언론사의 외극, 편파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구구히 변명해나섰다.

하지만 역적패당의 조치는 일종의 정치보복, 언론탄압이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평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력들은 윤석열역도가 군사독재시기의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보도자유》에 대한 침해,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볼수 있는 행위, 치졸하고 비렬한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해나섰다.

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을 비롯한 8개 언론단체들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적패당이 저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대한 개인복수에 매어달라고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물의를 일

치졸하고 비렬한 언론 탄압

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경우 전면대결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긴급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비난과 항의의 목소리는 해외에서까지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주장하는것처럼 《MBC》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부당한 조치야말로 비렬한 언론장악, 언론탄압행위이며 남조선사회를 더욱 황량한 민주주의페허지대로 만들려는 파초적폭거인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9월 미국행기간 윤석열역도가 내뱉은 망발은 남조선언론들과 외신들에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물의를 일

론사들은 윤석열역도의 무지, 무능, 강권과 전횡, 온갖 요설과 음모적방법에 의한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제재하고있다.

그 기사들이 남조선내에서 반윤석열기운을 고조시키고있다며 여기고있는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저들에게 엮어나가는 언론들에 대한 탄압도 열을 올리고있다.

언론에 자갈을 몰리고 강권과 강압으로 언론을 권력의 시너로, 독재《정권》유지를 위한 어용나팔수, 매진로 만들자것이 역적패당의 흥심인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이 부당한 압력과 비렬한 방법으로 언론을 장악하여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려고 해도 진실은 결코 감출수 없다.

역적패당의 강권과 전횡, 파초탄압은 남조선 각계층의 반《정부》, 반윤석열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반역《정권》의 파멸을 보다 더 앞당길뿐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락랑 박물관을 찾아서 (5)

락랑 문화시기의 목걸이와 가락지, 옷저울...

락랑문화시기의 마구 및 수레부속품들이 전시된 구획을 돌아본 우리는 이어 몸치레기리와 화장용구류구획을 돌아보았다.
남경희책임강사가 우리에게 락랑문화시기의 몸치레기리와 화장용구류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락랑문화시기의 몸치레기리에는 락고리, 팔찌, 가락지, 머리핀, 비녀 등이, 화장용구류에는 옷저울과 거울받치개, 빗, 팔라개 등이 있었다고 한다.
남경희책임강사는 이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몸차림을 보다 아름답고 우아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하던 일종의 장식품인 동시에 하나

의 정교한 공예품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락고리는 판로들이 이용하던 남자의 몸치레기리인데 신분등급에 따라 재료와 무늬장식을 달리하게 되어있었다고 하면서 그 실례로 석암리 9호무덤에서 나온 순금으로 만든 락고리 락고리와 정백동 37호무덤에서 나온 은으로 만든 락고리를 들었다.
또한 녀성들이 머리단장을 하는데 쓰이던 은이나 대모갑, 청동으로 만든 비녀나 대나무로 만든 팔라개만 보아도 당시 부유한 녀성들이 머리를 장식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락랑문화시기 목걸이의 구

슬은 옥과 수정, 호박, 유리, 뼈, 활석 등의 재료로 만들었는데 그 색깔도 여러가지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몸치레를 하고 화장을 하는데 쓰이던 유물들과 함께 몸단장을 한 두 남녀의 랍상도 전시되어있었는데 녀성은 귀걸이와 목걸이, 팔찌, 가락지를 구색에 맞게 착용하고있어 아름다움을 뚜렷이 나타내고있었다. 전시

된 몸치레기리와 화장용구류들을 통하여 우리는 락랑문화창조자들의 뛰어난 창조적지혜와 재능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장숙영



지방원료로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생산을 확대

▷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

지방공업의 본보기적실제로 개건현대화된 공화국의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제품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군에서는 군중적운동으로 1,000여정보의 원료기지와 수유나무림 등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생산의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할 수 있는 원료보장장태를 마련하였다.
한편 지방공업공장들의 종업원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기술혁신활동과 계획수행률을 끌어올리는데서 한몫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제품의 질제고를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10월계획을 초과한수한 식료공장에서도 그 기세로

매일 계획을 드림없이 수행하고있다.
작업반들에서는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인민들이 즐겨 찾는 맛좋은 기초식품과 당과류, 산과일음료 등을 대량생산하고있다.
일용품공장에서도 생형기, 압출기 등의 가동률을 높여 비누와 수지제품, 가구제품, 초물제품을 질적으로 만들어내고있다.
종이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역시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새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각이한 용도의 종이를 생산하고있으며 옷공장 종업원들은 새형태의 학생교복생산에 정성을 기울이고있다.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선로동당의 지방공업건설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며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해 종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본사기자

사람의 호흡기계통은 자체의 완벽한 면역기능을 가지고있다. 호흡기계통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코는 자체조절능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코털과 점액은 기관지로 들어오는 공기속의 세균과 병균을 비롯한 미생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코가 자기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호흡기계통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련관된다.
겨울철 호흡기계통질환을 예방하자면 방안습도를 약간 높이는것이 좋다.
연구에 의하면 방안의 습도가 40%이하이면 호흡기계통의 항균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먼지가 세균을 들이마시던 인차 호흡기계통질환에 걸리게 된다.
더운 음료를 자주 마셔도 몸이 불편한감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더운 음료의 향과 수증기가 타액을 비롯한 점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호흡기계통이 건조해지는것을 방지하여 병균감염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홍차, 목차, 레몬수 등을 마시는것이 좋다. 음료가 뜨거울 때 잔에서 주걱 하나 떨어진 위치에 코를 대고 수증기를 들이마시다가 음료가 식은 다음에 마시면 좋다. 이렇게 하면 병균과 세균을 막을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목차에 들어있는 성분인 류행성감기비루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겨울철에는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를 하고 코안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본사기자



명래매운탕

음식감으로 명래 2kg일 때 두부 300g, 소금 5g, 고추장 50g, 기름 10g, 파 30g, 마늘 20g, 생강 5g, 풋고추 20g, 고추가루 5g을 준비한다.
명래는 길이 3~4cm정도로 토막내어 소금을 뿌려놓는다.
두부는 나박모양으로 썰고 풋고추와 파의 일부는 송송 썰어 놓는다.
명래대 가리로는 국물을 만들고 다진 애와 고지, 고추가루, 잘게 썬 풋고추, 다진 파



성적이 낮은 리유

친척이 나들이를 왔다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고 물었다.
《다른 과목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력사성적이 좀 락후해요.》
그녀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력사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는 모양이군요.》
친척이 다시 물었다.
《그런것같지도 않아요. 내가 일전에 우리 예의 력사시험지를 보았는데 문제들이 모두 그에게 태어나기 전에 있는 일들이더군요.》
그녀가 그에게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하는 말이였다.

겨울철 호흡기계통을 보호하자면

사람의 호흡기계통은 자체의 완벽한 면역기능을 가지고있다. 호흡기계통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코는 자체조절능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코털과 점액은 기관지로 들어오는 공기속의 세균과 병균을 비롯한 미생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코가 자기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호흡기계통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련관된다.
겨울철 호흡기계통질환을 예방하자면 방안습도를 약간 높이는것이 좋다.
연구에 의하면 방안의 습도가 40%이하이면 호흡기계통의 항균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먼지가 세균을 들이마시던 인차 호흡기계통질환에 걸리게 된다.
더운 음료를 자주 마셔도 몸이 불편한감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더운 음료의 향과 수증기가 타액을 비롯한 점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호흡기계통이 건조해지는것을 방지하여 병균감염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홍차, 목차, 레몬수 등을 마시는것이 좋다. 음료가 뜨거울 때 잔에서 주걱 하나 떨어진 위치에 코를 대고 수증기를 들이마시다가 음료가 식은 다음에 마시면 좋다. 이렇게 하면 병균과 세균을 막을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목차에 들어있는 성분인 류행성감기비루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겨울철에는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를 하고 코안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본사기자

연암동과 박지원 (6)

글 리성우, 그림 채대성

종간은 말에서 내려 너푼 절을 하고서 《토환에 계시는 아버님을 잘 모셔오라는 어머니의 분부를 받고 뒤따라왔습니다. 연암동에 들리니 벌써 떠나셨다 하기에 급히 달려왔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는게냐?》
연암은 부인과 아들의 녀름을 고통스럽게 여기며 빙그레 웃었다.
《아버님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그렇다면 너도 개성으로 함께 가자. 개성은 내 한생에서 잊지 못할 고장이다. 나를 위해주던 친지들도 많거니와 10여년을 내 그곳에 드나들며 글을 읽었다.》
연암은 감회깊은 눈길로 사방을 두루 살펴보더니 《없어진것에 쉬어간다고 우리 여기서 잠깐 쉬어가지.》 하며 말에서 내려 길옆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들 종간이도 옆에 와앉고 견마잡이하인도 말을 풀말에 매놓고나서 필적이 없었다.
연암은 주변을 두루 살펴보더니 《이곳은 낯익은 곳이구나.》 하며 감격해하였다.
큰길이나 소나무 울창한 고개마루를 타고넘었는데 그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개성 동대문이 곧바로 바라보이고 서남쪽으로 같이 무성한 넓은 벌이 펼쳐져있었다.
연암동에 와있을 때 이 길을 얼마나 다녔던가. 어느해였던지 이 고개에서 개성류수 유사경의 행차와

맞다들어 쇠득이라는 길가던 젊은이와 함께 길가에 엎드렸던 일도 생각났다.
쇠득이를 그후에 금학골 양씨로인네 집에서 두세번 만났었다. 쇠득이가 심부름이차 들어주었다면서 우정 찾아왔던것이다.
그래서 한양집으로 몇번 요긴한 심부름을 보냈었는데 그때마다 양복 200리길의 수고를 연암은 잊을수가 없었다. 마음씨 순박하고 저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도와주려고 애쓰던 젊은이였다. 연암은 평생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 나라 백성들을 생각할 때면 쇠득이의 인정넘치는 푸수한 얼굴이 떠올랐고 쇠득이를 생각하면 이 나라 백성의 모습이 보였다.
안의현감으로 나가있을 때 억울하게 죄를 입은 한 젊은이가 라졸들에게 잡혀 졸경을 치르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연암은 문득 쇠득이의 모습이 눈앞에 열려져 고을아전들의 못된짓을 끝끝내 밝혀내고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
쇠득이를 이 고개길에서 만난것은 우연이었지만 량반사대부들의 고루한 세계에 등을 돌리고 실사구시의 새 사조를 지향하여 풍파사나운 길에 나선 연암이 곤로하는 참다운 생활의 창조자들인 백성들과 만나게 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었다.
연암자신이 알았건몰랐건 그의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4.25체육단 력기감독인 공훈체육인 리철남은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되었다.
희망의 나라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따듯이 보살펴주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11살 때부터 력기초기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그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체육단선수로 성장하였으며 그후 감독으로 되었다.
감독으로 내세워준 조국

의 믿음에 훌륭한 경기성파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리철남감독은 새로운 훈련방법을 부단히 탐구도입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왔다.
그 나날에 그가 맡은 신철법선수는 국제경기들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리철남감독은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성과를 거둘 때마다 보다 높은 목표를 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더욱 분발하곤 하였다.
그의 이런 노력은 신철법선수의 뒤를 이어 여러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안이오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지난해에 진행된 국내경기들에서 리철법선수가 놀라운 성과를 거둔것으로 하여 그를 맡은 리철남감독은 또다시 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뚝이 새김금동인왕상

뚝이 새김금동인왕상은 고려시대의 금속공예품으로서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나왔다.
이 공예품의 크기는 길이 6.3cm, 너비 4.5cm이다.
금동판을 뚝이 새김수법으로 새겨 인왕상을 형성한것인데 불교와 련관되어있는 공예품이다.
인왕상이라는것은 힘을 뽐내는 힘장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동으로 된 이 공예품은 4각형의 금동판에 두구와 갑옷을 입은 두명의 인왕상이 있고 내려드리는 활, 창, 검 그리고 락꿨잇들이 서로 련결되어있다.
원쪽의 인왕상은 칼을 쥔고 서있고 오른쪽의 인왕상은 창을 쥐고 서있는 모습으로 형성되어있다.

두구를 쓴 인왕상의 머리 주위로 원형고리로 된 두광을 뚝이 새김하였고 그우에



이러저리 굴며 밀려가고 서열자손(침차식)에 대한 차별법을 자자구기 막아넣은 《서류금고법》이란것도 갈기갈기 찢겨서 밀려가고 400여년동안이나 인제등용의 길을 막아오던 서북지방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흰 남마조각처럼 밀려가고 백성의 피를 말리우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3정(전쟁, 군정, 환정)까지도 쓰레기가 되어 밀려가더라 말이다.
《이애, 쇠득아, 이게 어찌된 일이지?》
공목에서도 너무 이상스러워 물었더니
《이게 바로 세월행차라는 것이오이다.》 라고 대답한다.
《세월행차라니?》
《세월이 구름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행차이는데 저것 보시오이다. 새 세월행차가 또 뒤따르오이다.》
쇠득이가 가리키는쪽을 보니 이번에는 흰구름에 휘감겨서 온갖 신식문물이 등등 떠들어오구나. 자명종, 지구의, 서양총, 천리경... 내 연정에 갔을 때도 보지 못하였던 신식문물이 수두룩

하더구나.
세월의 수레를 타고 새시대가 오는것을 느끼자 내 몸에서는 이상한 힘이 솟고 용기가 솟더라 말이다.
《연암선생님, 어서 가시오이다.》 하며 쇠득이가 내 팔소매를 당기자.
《오냐, 어서 가자. 우리라고 남에게 뒤질소냐. 어서 가자.》
취한 사람처럼 쇠득이와 함께 걸음을 옮기는데 앞에서는 태양같은 광명이 비쳐왔다. 너무도 눈부셔서 눈을 번쩍 뜨고보니 꿈이더라 말이다.
넋을 잃고 꿈이야기를 들

르듯이 량반사대부들이 모두 모른다니 이제 통란할 일이 아니냐.
연암은 고개마루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산천경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왜 이 고개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쇠득이를 처음 만난 곳 이어서 감회롭고 개성으로 자주 드나들던 낯익은 길 이어서 마음속에 정다운것도 사실이지만 내 꿈속에서조차 가자고 하던 그 길을 죽어서도 꼭 가고싶고 내가 못가면 너희들이라도 꼭 가야 할기 때문이다. 안철이 수려하고 남향이요 산천이 낯익은 이곳에 묻힌다면 내 꿈에서 가자고 하던 그 길을 죽어서라도 꼭 가고말것같구나.》
종간이가 낯빛이 해쓱해지면서 편잔하듯이 대꾸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갈길이야 생전에 가서야지요.》
《허허...》 연암이 시름없이 절절 웃었다.
《이러하면 그렇단 말이다. 세월이 한차례 지나야야 내 평생에 가자고 하던 그 길을 마치 가낼것같구나. 자, 그 단 가보자.》
연암은 옷자락을 털며 일어났다.
아들과 함께 말에 올라 개성 동대문을 바라보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몇해후에 연암 박지원은 예순여덟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 박종간이가 이날에 있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있는 까닭으로 해서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연암 박지원의 무덤은 지금 개성 동대문밖 황토고개 남쪽기슭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고있다.
《골》

《이게 바로 세월행차라는 것이오이다.》 라고 대답한다.
《세월행차라니?》
《세월이 구름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행차이는데 저것 보시오이다. 새 세월행차가 또 뒤따르오이다.》
쇠득이가 가리키는쪽을 보니 이번에는 흰구름에 휘감겨서 온갖 신식문물이 등등 떠들어오구나. 자명종, 지구의, 서양총, 천리경... 내 연정에 갔을 때도 보지 못하였던 신식문물이 수두룩